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제 () 선택
----	--	------	--	--	--	---	--	--	----------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게

자네가 인(仁)의 실천 방법에 대해 물었기에 답하고자 하네.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여 타인으로 확장되는 것이지. 이러한 인은 자기 마음으로 미루어 남을 이해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네. 그래서 어진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대로 남도 이를 수 있게 해주지. 그렇지만 인의 실천에 분별이 없어서는 안 되네. 오직 어진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라네.

- ① 인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된다.
- ② 인의 대상을 가족에서 이웃으로 확장해야 한다.
- ③ 어진 사람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하지 않는다.
- ④ 인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수양이 필요하다.
- 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타인에게도 권하지 말아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행위의 도덕성은 행복을 증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행복을 추구할 때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두 종류의 쾌락 중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선호할 것이며,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더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볼 것이다.

- ① 저급한 쾌락보다 고상한 쾌락이 더 바람직한가?
- ② 인간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 ③ 쾌락의 양만 같다면 어떠한 쾌락을 선택해도 무방한가?
- ④ 쾌락이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⑤ 행위의 선악은 쾌락의 양과 질 모두를 고려해 구분해야 하는가?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각자가 자기 성향에 적합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면서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아야 정의롭다.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방위자는 용기의 덕을,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발휘하여 조화롭게 살아간다. 이들 중 국가를 이끄는 계층은 사적인 부를 추구하지 않는다.

- ① 세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지혜를 탁월하게 발휘해야 한다.
- ② 국가 구성원 모두가 같은 일에 종사해야 정의가 실현된다.
- ③ 통치자는 생산자 계층의 능동적 정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 ④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세 계층이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
- ⑤ 모든 계층이 재산을 공유하여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에 대한 사랑은 정의로운 세계 질서의 핵심인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랑과 공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 대해 지니는 비합리적인 공포, 혐오, 분노는 인간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는 타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동료인 세계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 연민을 가짐으로써 세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 보 기 >

- ㄱ. 애국심을 버려야만 세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 ㄴ. 혐오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ㄷ. 세계 시민은 타인의 고난에 대해 연민을 가져야 한다.
- ㄹ. 분노의 원인 탐구는 세계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5.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시장은 유효 수요 부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불황의 극복과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을: 시장 질서를 부정하면 인간은 노예의 길로 가게 된다. 정부가 시장을 불신하고 정책을 통해 실업이나 공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인 자만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고, ㉡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대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 질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고, ㉣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 이상 사회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대동(大同) 사회에서는 재물을 낭비하지 않으며 반드시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도 않는다.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용되고 노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은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을: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속하여 누구나 공동 창고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쓰지만 사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루 여섯 시간 일하고 여덟 시간 잠자며 나머지 시간에는 주로 지적인 여가 생활을 한다.

- ① 갑: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도우며 조화롭게 산다.
- ② 갑: 사회적 신분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을: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얻은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 ④ 을: 일정 시간 이상의 노동이 강요되지 않고 여가가 중시된다.
- ⑤ 갑과 을: 사람들이 물질적 탐욕 없이 검소한 삶을 살아간다.

7.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정의로운 사회는 가상 상황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p> <p>을: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복잡 평등으로서의 정의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된다.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분배의 기준에 따라 분배된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p>< 범례 ></p> <p>□: 출발 조건</p> <p>◇: 판단 내용</p> <p>→: 판단 방향</p> <p>○: 사상가의 입장</p> </div>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아니요" --> End1[] A -- "예" --> B{B} B -- "예" --> End2[] B -- "예" --> C{C} C -- "예" --> End3[] C -- "예" --> End4[] </pre> <p style="text-align: center;">갑의 입장 을의 입장</p>

< 보 기 >

㉠. A: 가상 상황에서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 B: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부의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는가?
 ㉢. B: 기본적인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 C: 모든 사회적 가치는 능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하늘과 땅은 어질지[仁] 않아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聖人)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 으뜸이 되는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 그래서 도(道)에 가깝다.

< 보 기 >

㉠. 하늘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 통치자는 인(仁)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인간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겸허하게 살아가야 한다.
 ㉣. 도에 일치하는 삶은 인위(人爲)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에는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 외에도 억압과 같은 구조적 폭력, 그리고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습니다. 폭력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삼각형에서 어떤 꼭짓점에서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짓점으로도 이어집니다.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져야 합니다.

- ① 구조적 폭력은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 ② 폭력의 주체는 사회 구조가 아닌 개인으로 한정된다.
- ③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제거만으로도 완성된다.
- ④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⑤ 폭력은 항상 직접적 폭력에서 시작해 다른 폭력으로 이어진다.

10.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을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게 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손이 도구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듯이 지성도 도구가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 ① 자연은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관찰과 실험의 방식으로는 자연을 파악할 수 없다.
- ③ 참된 지식의 근원은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이성이다.
- ④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없으며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 ⑤ 자연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려면 자연을 변형하지 말아야 한다.

11.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통치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소와 양을 살찌우는 목자와 같다. 통치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하여 피지배자들이 이행하도록 한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을: 통치자는 목적지로 배를 이끄는 선장과 같다. 통치자는 피지배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지시한다. 정의는 덕이고 지혜이며, 부정의는 악덕이고 무지이다.

- ① 갑은 통치자는 언제나 피지배자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본다.
- ② 을은 부정의가 통치자의 무지함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정의를 추구할 때 어떤 이익도 고려하면 안 된다고 본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정의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통치자에게 정의를 규정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12. 사회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지만, 공동된 재판관의 부재로 재산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재산의 보존을 위해 자연 상태를 떠나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국가를 결성하게 된다.
 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의 위협이 뒤따르며, 어느 것도 부당하지 않다.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불의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 ① 갑: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지 않는다.
- ② 갑: 개인은 국가 성립 이후에 비로소 재산권을 부여받게 된다.
- ③ 을: 개인은 자기 보존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형성한다.
- ④ 을: 자연 상태에서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부정의로 간주된다.
- ⑤ 갑과 을: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연 발생적 공동체이다.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천하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兼相愛], 서로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交相利]. 이를 실천하여 나라 간에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면[非攻] 나라와 백성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 < 보 기 > —
- ㄱ.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
 - 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침략 전쟁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ㄷ. 전쟁하지 않는 것은 자국과 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 ㄹ. 통치자는 백성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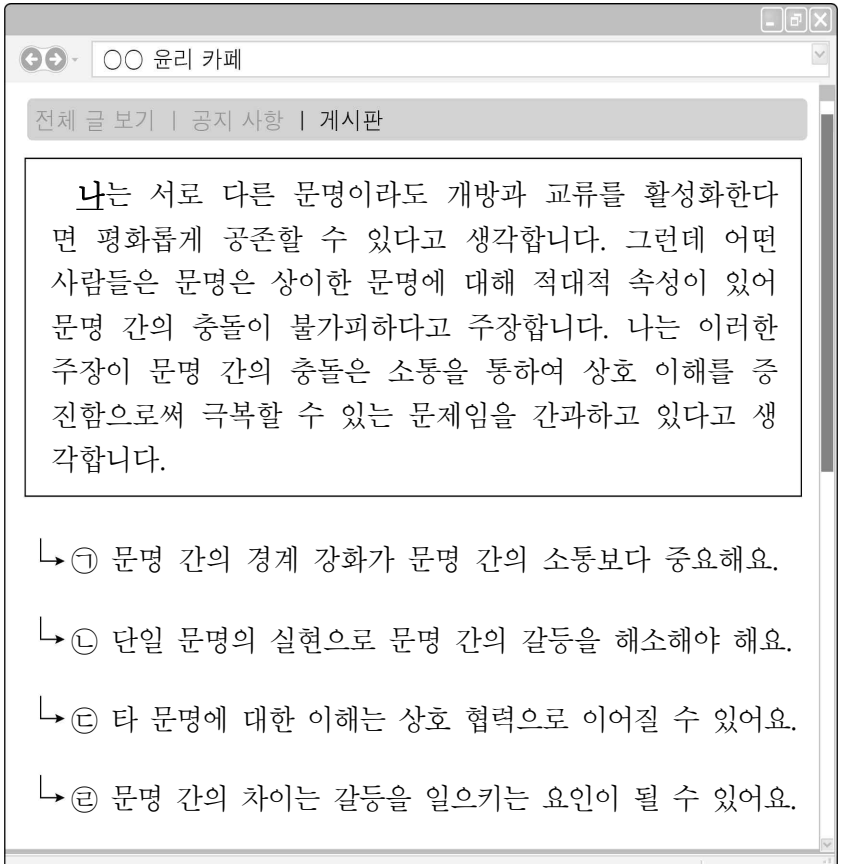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그림은 현대 서양 사상가와의 가상 대담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민주적 문화와 제도의 정착은 빈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원조는 모든 사람의 빈곤이 사라질 때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 ③ 질서 정연한 사회라도 물질적으로 빈곤하다면 원조 대상이다.
- ④ 질서 정연한 사회의 성립에 막대한 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⑤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원조의 궁극적 목표이다.

15. 그림은 인터넷 게시판 화면이다. 밑줄 친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만을 ㉠ ~ ㉥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생의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이를 알지 못하고 집착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통찰하면 집착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칠 줄 모르는 욕망이 소멸하여 해탈(解脫)하고, 다시는 생사(生死)를 반복하지 않는다.

- ① 탐욕과 어리석음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 ② 물질에 대한 집착만 없앤다면 해탈에 이르게 된다.
- ③ 고통의 원인이 소멸하더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④ 해탈한 사람은 반복되는 삶과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다.
- ⑤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는 우리가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나의 유일한 의무는 다수의 결정에 고분고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 < 보 기 > —

ㄱ.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을 근거로 해야 한다.
 ㄴ. 시민 불복종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ㄷ.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정당화될 수 있다.
 ㄹ.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실행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 지성적 덕에는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등이 있으며 이는 주로 교육에 의해 생긴다. 품성적 덕에는 온화함, 절제 등이 있으며 이는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 < 보 기 > —

ㄱ. 지성적 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ㄴ. 이성이 아닌 감정을 따름으로써 행복을 이룰 수 있다.
 ㄷ. 유덕한 성품을 지니려면 덕이 있는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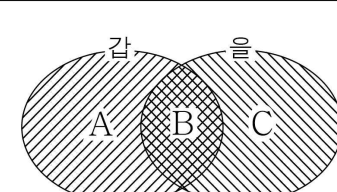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행위를 결심할 때의 동기에 의해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그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

고등학생 A는 친구들과끼리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 친구의 부모님께서 함께 가신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 ① 자신의 거짓말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하세요.
- ② 자기 가족의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선택하세요.
- ③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닌 주관적 판단을 따르세요.
- ④ 결과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행위하세요.
- ⑤ 거짓말하는 것은 선의지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20.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인의(仁義)를 행할 수 없다는 생각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사람에게 어찌 인의가 없겠는가? 인의를 보통 사람들은 내버리고 군자는 보존한다.</p> <p>을: 인의가 사람의 본성일 수 있을까? 인을 따르는 사람은 괴로움이 많다. 반면 도(道)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세속의 간섭이 없어 안정되고, 얽매임 없이 무위(無爲)의 경지에서 노닌다[逍遙].</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 범 례 > —</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 < 보 기 > —

ㄱ. A: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의로움[義]을 쌓아야 한다.
 ㄴ. B: 자신의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이상적이다.
 ㄷ. B: 인의를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 보아서 안 된다.
 ㄹ. C: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